

“높이의 배구” 확실한 존재감 보여줄 것”

‘아시아쿼터 1순위’ AI페퍼스 ‘트윈 타워’ 장위

“나만의 장점 극대화...팀에 헌신하는 선수 되고 싶어”
레전드 미들블로커 장소연 감독과의 소통 든든한 힘
새로운 도전 목표는 “다득점으로 봄배구 진출 견인”

“새로운 도전에 걱정과 우려가 앞섰으나 팀에 합류하고 보니 기우였네요.”

아시아쿼터 트리아아웃 1순위로 AI페퍼스 유니폼을 입은 장위는 지난 9일 페퍼스타디움에서 “몸 상태가 너무 좋다. 사는 방식과 음식 모두 비슷하고 동료들과도 친해져 순조롭게 팀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cm 미들블로커인 장위는 2013년 중국리그 베이징 자동차여자배구팀(BAIC 모터)에서 활약하며 리그 베스트 미들블로커에 선정됐으며, 2015년 U-23 중국 국가대표로 발탁돼 AVC 아시안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이다.

동료들과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장위는 “특히 세트와의 호흡이 중요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함께 훈련하며 자연스럽게 팀에 녹아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V리그 경기를 많이 챙겨 봤고 좋은 배구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을 원활하게 처리

하고, 세트의 능력도 좋다. 공을 놓치는 일도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 ‘높이의 배구’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AI페퍼스가 장위에게 거는 기대감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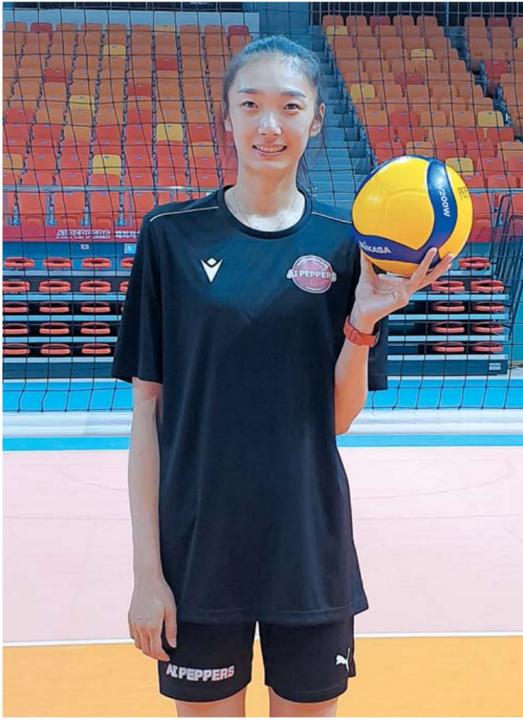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1순위로 장신 아포짓 스트라이커 바르바라 자비치(194cm·크로아티아)를 영입한 AI페퍼스는 강력한 ‘트윈타워’로 올 시즌 V리그를 장악한다는 각오다.

장위는 “나 역시 내 장점은 높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은 줄여나갈 계획이다. 리시브가 잘 되지 않은 공을 처리하는 것도 잘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역 시절 레전드 미들블로커로 이름을 날린 장소연 AI페퍼스 감독은 미들블로커 장위와 더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장위는 “감독님께서 공격을 할 때 스텝을 밟는 타이밍, 스파이크를 하는 타이밍 등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또 밥이 입맛에 맞는지 잘 자는지 등 세심한 체크를 해주신다”고 말했다.

높은 타점을 활용한 속공, 이동



아시아쿼터 1순위로 AI페퍼스 유니폼을 입은 장위가 지난 9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올 시즌 각오를 다지고 있다.

공격, 블로킹 등 높이에 우위가 있는 장위는 상대 주요 공격수를 막아낼 수 있고, 확실한 속공이 추가되기에 공·수 양면에서 필승카드를 주목받고 있다.

장위는 올 시즌 목표는 ‘AI페퍼스의 봄배구 진출’이다.

그는 “팀 동료들, 감독님, 코치님

이 모두 훈련에 적극적인 부분이 인상깊으며 많은 득점을 통해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 또 승리를 보내주는 팬들에게 감사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 AI페퍼스와 함께 반드시 봄 배구에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파리올림픽 태극전사가 된다 ③근대5종



지난달 28일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근대5종 국가대표 미디어데이에서 최은종 감독(왼쪽부터), 서창완, 전용태, 성승민, 김선우, 김성진 코치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젠 금메달·멀티 메달이다”

도쿄서 ‘사상 첫 메달’...파리 앞두고 남녀 동반상승세 기대감

한 명의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육상+사격)을 모두 소화해야 해 ‘진정한 올림픽 스포츠’로 불리며 ‘진정한 올림픽 스포츠’로 불리는 근대5종은 3년 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메달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남자부 경기에서 전용태(광주시청)가 동메달을 목에 걸어 1964년 도쿄 대회 이후 60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했다.

아시아에선 2012년 런던 대회 때 차오중롱(중국)의 남자부 은메달에 이어 전용태가 역대 두 번째로 올림픽 근대5종 메달리스트가 된 바 있다.

이후에도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전용태가 2관왕에 오르는 등 한국 근대5종은 국제 무대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뒀다.

‘메달 색깔’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최초의 단일 올림픽 ‘멀티 메달’ 획득이다.

도쿄에서 첫 동메달이 나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상 첫 금메달에 여러 개의 메달 획득까지 내심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 국제근대5종연맹(IPM) 월드컵에서 고르게 입상자를 내온 대표팀이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은 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한층 키웠다.

2003년생 신에 성승민(한국체대)이 한국 근대5종의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전 사상 첫 입상을 금메달로 장식

했고, 전용태가 5년 만에 개인전 동메달을 수확해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였다.

남자 계주에서 전용태-서창완이, 여자 계주에서 성승민-김선우가 각각 금메달을 합작해 사상 첫 남녀 계주 동반 우승도 나왔다.

김선우와 서창완은 혼성 계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단체전에선 남녀 모두 은메달을 수확해 사상 첫 ‘전종목 입상’을 달성했다.

올림픽 근대5종엔 한국에서 남녀 선수 2명씩 출전할 수 있는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맹활약한 전용태, 서창완, 성승민, 김선우가 나란히 파리로 향한다.

전용태와 김선우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입상으로, 성승민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서창완은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집계된 세계랭킹을 통해 파리행 티켓을 거머쥘 것이다.

올림픽 근대5종에선 단체전이나 계주는 없이 남녀 개인전만 열려 전용태와 서창완, 성승민과 김선우는 각자 경기에 들어가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지만, 모두가 ‘동반 입상’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일정 첫날인 8월8일(현지시간) 아레나 파리 노르에서 예정된 펜싱 랭킹 라운드를 제외한 경기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진행돼 ‘보는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전남태권도협회 정상화 ‘시동’ 전남도체육회 준회원 가입 의결

송진호 회장 ‘통합’ 의지 결실

전남태권도협회가 협회 운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9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전남도태권도협회 제55차 이사회’를 개최해 전남태권도협회를 준회원으로서의 가입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남태권도협회는 2017년 7월 5일 전남도체육회 제6차 이사회에서 유보단체(당시 결격단체)로 지정된 뒤, 2021년 6월 29일 제1차 임시 총회에서 제명 처리되는 우여곡절 끝에 3

년여 만에 회원종목단체의 지위를 되찾았다.

전남태권도협회는 지난해 4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남체육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 합의를 이룬 후 정상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준회원단체로 가입을 신청, 제55차 이사회에서 집행부 임원의 동의가 이끌어냈다.

특히 전남태권도협회의 준회원 가입까지는 민선2기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의 끈질긴 설득과 합의에 의한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 준회원으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 전남도체육회 이사진들이 지난 9일 열린 전남도체육회 제55차 이사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가입된 전남태권도협회의 정상화 과정을 면밀히 살핀 뒤 9월 중 임시 회의 원총회에서 정회원으로서의 가입 승인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태권도협회의 준회원 가입 승인은 전남태권도의 발전과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 체육의 발전과 태권도 정상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24년도 상반기 전남체육 진흥 성과 등 3건의 보고사항과 ▲임원 보선 ▲각종 규정 개정 ▲2024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등을 처리했다. /박희중 기자

최형우, 최고령 다년계약 → 최고령 올스타 MVP → 최고령 만루포까지

“오늘에 최선...최고령 기록 의미 없어”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최형우가 ‘최고령 기록’의 의미를 부각하지 말아 달라며 장난 섞인 투정을 부렸다.

최형우는 지난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KBO리그 최고령 국내 선수 만루출런 기록을 세운 뒤 “‘최고령’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럽다”라며 “최고령 기록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난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은퇴하는 날까지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령 기록은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와 ‘나이를 먹은 뒤에도 경쟁력을 잃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최형우는 후자의 의미처럼 세월을 거스른 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각종 최고령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최형우는 지난 1월 KIA와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선수 중 역대 최고령으로 다년 계약서(1+1년, 총액 22억원)에 도장을 찍더니, 6일에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40세 6개월 20일의 나이로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MVP)에 뽑혔다.

그리고 후반기 첫 경기가 열린 이날 그랜드슬램을 터뜨렸다.

최형우는 40세 6개월 23일의 나이에 만루출런을 때려 이대호(40세 2개월 30일)를 제치고 국내 선수 최고령 만루출런 기록을 세웠다.

그는 지난해 KBO리그 역대 최다 2루타(현 510개) 1위, 최다 타점 1위(현 1천 620점)에 올랐고, 올해엔 최다 루타 1위(현 4천 127루타) 자리를 꿰찼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형우는 이날 5타점을 쓸어 담으며 총 78타점을 기록해 역대 최고령 타점왕 타이틀에도 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V3’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KIA, ‘V12’ 기원 시구·시타

오는 13일 SSG戰

KIA 타이거즈가 오는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SG와의 홈경기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강성형 감독과 양효진 선수를 초청, 승리기원 시구, 시타 이벤트를 개최한다.

지난 4월 ‘도드람 2023-24 V리그’ 여자부에서 통합 우승을 차지해 V3를 달성한 현대건설 배구단은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방문해 KIA 타이거즈 선수들에게 우승의 기운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이날 시구는 현대건설 배구단 양효진 선수가 하며 시타는 광주 출신의 강성형 감독이 맡는다.

경기 중에는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들과 함께하는 이닝 교대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시구 시타 행사는 현대자동차그룹 스포츠팀 간 교류 활성화를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두 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홍철 기자